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지 못한다.
원망을 떠나야 원망을 풀 수 있다.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월 13일)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웹툰 · 문예 · 법회 등 선양사업도 진화한다

불교계 99주년 3.1절 선양활동 '다채'

노덕현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3.1운동 99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3.1운동 정신 선양에 앞장선다.

먼저 불교계는 3.1절을 맞아 불교계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다양한 법회와 행사를 연다.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는 3월 1일 죽림정사 내 용성교육관에서 제99회 3.1절 기념법회를 갖고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백용성 조사의 독립정신을 되새긴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을 비롯해 법륜 스님 등 200여 대중이 참석한다.

합천 해인사(주지 향적)도 99주년 삼일절 기념식과 함께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한 용성 · 만해 스님을 기리기 위한 합동다례재를 봉행한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도 3월 1일 부산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기념식을 봉행한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매년 부산불교계의 호국정신과 범어사 내 명정학교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념식을 열고 있다.

박대성 회장은 "3.1운동은 부산불교계가 앞장섰던 호국불교역사"라며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2019년 3 · 1절 100주년을 기념해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의 산실인 종립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정진완)도 3월 1일 금정중 유공비 앞에서 추모 헌다례를 봉행한다. 추모 헌다례에 이어 동래 독립만세 운동의 소개와 만세 삼창 행사가 이어진다. **만해사상실천연합**(회장 선진규) 등 불교계 단체 인사 20여 명도 2월 28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3.1운동 100주년 불교도 평화통일행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3.1운동과 卍해'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3.1운동 정신을 선양하는 행사도 99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는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국대 중강당과 일대에서 제39회 전국 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1979년 3월 1일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진행되는 만해백일장에는 올해 특히 최대인원인 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만해백일장에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서울시장상 등이 수여되며 총 600여 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광주 나눔의집(소장 안신권)도 나눔의집 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월 1일 지자체의 불교계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서울 은평구청(청장 김우영)은 3.1절을 맞아 1980년대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국내 만화계를 대표한 이현세 만화가와 콜라보 웹툰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진관사의 독립운동 영웅인 백초월 스님 일대기를 다룬 이 웹툰은 대형포털사이트인 다음웹툰컴퍼니에서 3.1 특집 웹툰 '거장과의 만남'이라는 타이틀로 5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다.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백초월 스님 웹툰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되짚는 것을 넘어 한국불교 전통문화인 수륙재와 다양한 혼령들이 등장해 주인공 꿈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해인사 · 죽림정사 등 법회
부산불교 만세 운동 재현
역대 최다인원 만해백일장
은평구 백초월 웹툰 선보여

특히 백초월 스님뿐만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겪은 고초,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조국을 위해 몸 바친 학도병들의 활약까지 담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과정 속 역사적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은평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오마이뉴스〉를 통해 ㈜붕붕아트가 제작한 또 다른 백초월 스님 웹툰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삶'을 연재하고 있다. 또한 BBS불교방송은 3월 1일 밤 10시 40분 백초월 스님 다큐멘터리 '백년의 기다림'을 특별 편성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만해로드 대장정 답사도 진행했다.

고재석 만해연구소 소장은 "3.1운동을 비롯해 독립운동 전반에 불교계의 역할이 컸다"며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99주년을 맞아 불교계 독립운동에 대한 재조명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 동국대(총장 보광)는 2월 20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서 '2018년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을 통해서 박사 98명, 석사 437명, 학사 1966명 등 총 2501명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식 본식에 앞서 단과대학별 학위 수여식도 진행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법학관 163호 강의실에서 학사 학위자 47명에 대한 학위를 수여했다. 사진은 동국대 불교학부 졸업생들이 교내법당인 정각원 앞에서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불자 선수 선전에 국민들 '감동'

평창 동계올림픽, 심석희 등 쇼트트랙 계주 金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불자선수들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주장 심석희 선수는 주종목인 1500m에서 예산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20일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행복바라미 홍보대사이기도 한 심석희 선수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토심'이란 법명을 가진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는 2월 18일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잦은 부상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부상 회복에 치중했던 이상화 선수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메달 획득에 성공했으며,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와의 뜨거운 포옹으로 전세계에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진천선수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불자 황대헌 선수도 2월 22일 쇼트트랙 500m에서 주종목 예선 탈락의 아픔을 극복하고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밖에 스피드스케이팅의 모태범 선수, 평행대회전의 최보군 선수, 바이애슬론의 김용규 선수 등도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했다.

또 선수들을 위해 불자인 선수 부모의 기도도 화제에 오르고 있다. 쇼트트랙 2관왕 최민정 선수의 어머니를 비롯해, 아시아 최초 1500m 동메달과 팀추월 은메달 리스트인 김민석 선수의 아버지 등이 경기 전 사찰을 찾아 기도를 올렸다.

이상화 스피드스케이팅 銀
황대헌 쇼트트랙 개인 銀
불교신도단체 응원단 파견

박종길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은 "체력뿐 아니라 정신력 강화도 중요하기에 불교 신행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메달 획득 뿐만 아니라 화합과 열정이란 올림픽 정신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장하다"고 전했다.



심석희 선수



이상화 선수



황대헌 선수

한편, 이 같은 불자선수들의 선전에 재가불자들도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임원 및 신도단체, 포교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재가불자 응원단은 2월 14일 올림픽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컬링 경기를 관람했다.

이번 응원단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를 포함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체육인불자연합회 △경제인불자연합회 △조계종산악회 △서울교통공사법우회 △언론사불자연합회 △한의사불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13개 신도단체와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등 포교단체의 대표자 약 50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금석)와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회장 양희동) 등 불교 각 단체 대표자 50여 명도 2월 17일 강릉 아이스하키장에서 열린 한국 아이스하키팀을 응원했다.

양희동 대불련 회장은 "응원을 계기로 불자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졌으면 한다. 또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사찰에서 한국불교문화를 접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평창 봉사 참가기 A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장엄불사 전문기업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보련기획은 연등 자동승강장치, 장엄등설치, 인등, 위패, 원불전등 사찰장엄불사 전문기업입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책임시공,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찰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공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과 신제품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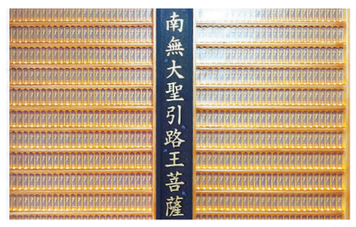
연등설치공사(고정식)



천불전



인등


위패


성취등


불사용품

www.boryeon.com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